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줄인 말입니다.

판매가 1,000원 - 소액자 수익금은 다음 소식을 발행하는데 쓰입니다

2004 10 · 11월호

LGBT PAPER

발행일 / 2004년 10월 2일 발행처 / 동성애자인권연대 출판부 발행인 / 정을 편집 / 강태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5층 Tel 02)778_9982 Fax 02)775_9983

**“Silence is Death,
Action is Life”**

**“Silence is Death,
Action is Life”**

**“Silence is Death,
Action is Life”**

10.17국제공동반전행동
오후 3시 대학로 무지개 깃발아래 모읍시다!

LGBT PAPER 동성애자와 헌혈 02/ 국가보안법 폐지 02/ 동성애자 인권캠프 04~05/ 국민연금과 동성애 06/
방콕 AIDS컨퍼런스 참관기2 07/ 온라인과 동성애 09/ Queer Eye (빠에르&집 版2) 10/ 인권운동
과 나 11

동성애자도 헌혈할 수 있나요?

고승우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한 동성애자가 길거리를 가다가 오랜만에 가룩한 마음으로 헌혈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혈액원으로 들어간다. 동성애자는 헌혈 전 작성해야 하는 문진표를 너무도 정직하게 작성한다. 이 문진표의 15번의 3항에는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당연히 애인이 있는 동성애자는 당당하게 체크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헌혈을 위해 반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누워있던 동성애자에게 간호사가 당황한 듯 다가오더니 접수자가 문진표를 잘못 봤다며 헌혈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15번의 3항에 체크를 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안 가는 동성애자는 왜 그 항목이 문제가 되냐며 따져 물었고 간호사는 에이즈 문제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다. 그럼 에이즈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이라는 질문에 간호사의 입에서는 "규정은 규정이다"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다.

이런 상황은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헌혈 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커밍아웃까지 하면서 문진표에 체크를 하고 헌혈을 시도하는 동성애자는 적다. 이 사회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적긴 하지만 가룩한 마음을 가진 동성애자 헌혈자의 입장에서 보면 헌혈 전 문진표의 15번의 3항은 매우 차별적인 조항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이 있었다'

동성은 동성이지만 이성도 불특정 이성이다. 왜 그런가? 이 문진문항이 존재하는 이유가 에이즈 문제 때문이라 한다면 동성간의 섹스는 단 한번의 섹스도 위험하지만 이성간의 섹스는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가 있어야 위험하다는 말인 것인가? 에이즈가 전염병인데 신체 건강한 동성애 커플들이 섹스를 한다고 해서 없던 바이러스가 생겨난단 말인가? 이성애자가 불특정 이성과의 관계를 맺어야 에이즈에 노출될 확률이 있다면 적어도 동성애자에게도 똑같은 기준이라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HIV 감염확률의 문제라면 지금까지의 역학조사에서 감염될 확률이 가장 낮은 레즈비언들도 동성애자인데 그럼 레즈비언도 헌혈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차별적 문항에 의구심을 품었던 건 많은 동성애자들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문항을 무시하거나 아예 헌혈할 엄두도 못 내던 상황에서 위의 사례를 접한 서울대 인권법을 수강하던 학생들이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

갑작스런 전화에 놀랄기도 했고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그동안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었으나 선뜻 나처럼 힘에 부쳤던 문제를 자신들이 조사해보고 싶단 얘기를 들었을 때 기꺼이 그 도움의 손길을 덥혀 잡았다. 그들의 도움으로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2003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진표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 8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혈액 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헌혈기록카드 중 문진사항 15번의 3항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 접촉이 있었다'는 문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진사항 15번의 3.을 동성 간 성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최소한 동성 간 성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문진의 차별행위가 인정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 결정은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편견에 제동을 걸었고 차별행위를 낳는 문진을 개정할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인권위는 권고에서 동성 간 성 접촉 전반을 문제 삼는 건 차별이지만 남성 간 성 접촉에 대해서 질문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사회일반에서 남성동성애자들을 HIV 감염 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HIV 바이러스는 전염되는 것으로 고위험행위를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약한 바이러스라는 게 의학계의 정설이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고위험행위 예방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뒷전이고 고위험집단 관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위험집단에 대한 배제가 헌혈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간의 성 접촉을 항문성교로,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배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문진의 문제점은 이런 배제가 현실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헌혈을 하는 동성애자는 이런 문항을 접했을 때 아웃팅의 위험 때문이라도 거짓으로 문진에 임할 것이며, 이랬을 때 문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권위의 권고대로 남성동성애자들만 배제할 수 있는 문진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이런 이유이다.

얼마 전 뉴스에서 HIV 감염인의 헌혈로 감염된 사례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이후 언론은 동성애자들의 비도덕성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한다는 추측성 기사까지 나왔다. 이렇게 언론과 보건당국은 HIV 감염 책임을 동성애자 집단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혈액관리 허술에 대한 내부자 폭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정한 문제는 혈액을 제대로 검사, 처리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안이함에 있다. 또한 실질적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핵산증폭검사법(NAT, Nuclear Acid Amplification Testing) 등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이 한 몫을 하고 있다. 공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2중, 3중의 안전망으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유효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차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방법을 고치지 않을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한편으로 동성애자들은 이런 논의에 진저리를 치며 왜 굳이 그런 난관을 풀고 헌혈을 해야 하는가 란 애교 섞인 짜증을 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 척 넘어갈 때 우리의 권리는 계속해서 잠을 잘 것이며 우리가 소리치고 주장할 때 우리의 권리는 진정 우리의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ں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헌법개정안의 본질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노무현의 발언 이

후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겠다고 나섰으며, 노무현을 지금 탄핵시켜야 한다고

나. 이미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발언들이 남한의 우익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노무현은 과연 다른가?





노무현의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은 당론을 '개정'에서 '폐지 후 보완'으로 바꾸었다. '형법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입장은 사상탄압법인 국가보안법을 수호하려는 우익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형법개정안'이나 대체입법인 '파괴활동금지법'에는 국가보안법 7조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가 있다. 7조는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받은 사람 중 80% 이상이 7조에 해당되었을 정도로, 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이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정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점은 반국가단체조항 개정여부에 대한 것 정도인데, 이조차 열린우리당이 낸 형법개정안 중 내란목적단체신설 부분에서 비슷하게 재현되어 있다. 북한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각종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87조의 2(내란목적 단체조직)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해석할 여지를 만들어 실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가장 문제된 조항을 유지하는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형법개정안을 마치 독재와 억압의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 것처럼 도색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이름만 바꾼 형법개정안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만이 대안임을 주장해야 한다.

내부단속법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사회가 무장해제 된다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도저히 앞뒤 맞지 않는 말을 한 바 있다. 원간조선의 조감제는 "공산화 될 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부터 나서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써야한다며, 대한민국은 돈의 힘으로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지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우익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자유롭게 돈을 끌어모으는 '자유'만 보장한다.

남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분단 상황과 냉전을 바탕으로 한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지배계급의 효과적인 무기였다. 오랜 세월동안 국가보안법은 억압적인 군사독재

체제에 대한 노동계급과 피억압대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처벌해왔다. 그래서 남한의 고속 경제성장은 위와 같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며, 조감제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국가보안법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칼끝은 우리 운동을 향해 있다.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면, 북한의 뒷선과 줄이 닿아있다는 박근혜를 비롯한 북한과 내통한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들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지금껏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이들과 한총련 학생들, 파업을 조직한 노동자들, 자본주의체제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 등 '내부의 적'들을 진압하는데 쓰였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무현도 마찬가지이다. 각종 리서치결과에서 나타나듯 지금 현재 국민의 압도다수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익정당 한나라당 마저도 소위 '개정'을 들먹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최근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제스처를 취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지금의 국가보안법 폐지논의는 그동안 운동이 성장하며 지배계급을 압박한 성과이다. 그러나 노무현의 파격적인(?)발언 덕택에, 꽤 많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흔들' 거렸는데, 이는 운동진영이 노무현에게 기대를 걸도록 하고 그를 지지하도록 하려는 시도이다. 노무현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한총련 활동가들을 여전히 구속하고, 자본가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꼬리를 치는 장본인이다. 앞서 설명했듯 그와 열린우리당이 내건 개정안이 국가보안법의 다른 버전일 뿐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노무현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할 수 있다.

매카시시대와 동성애자

국가보안법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들을 가리지 않는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더욱 억압받는 위치에 놓인 동성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더욱 극심하게 탄압받고 때로는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1999년 '동성애자해방과 마르크스주의'와 '동성애자억압의 사회사'라는 마르크스주의 서적이 이적표현물로 규정되었다. 이 두 책은 동성애 억압이 자본주의로부터 비롯한다는 관점에서 쓰여졌으며, 동성애자 해방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1년에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신문인 'Dyke'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대표가 연행되어가기도 했

다. 또한 2002년에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활동가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데에는 그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위기를 맞은 시기에 사회를 단속하기 위해, 성적보수주의를 조장하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성하는 것은 오래된 공식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에 접어들 때에 미국에서 일어난 매카시즘(매카시 미 상원의원, 파괴분자리스트를 만들어 탄압을 주도했다.)은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한다. 지배계급은 전쟁 후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공산당원이나 당에 연루된 활동가들, 노동조합 조직가들과 노동자들을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한 '파괴분자'로 몰아붙이며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집단을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색출하기 시작했다. '선량한 기독교계 백인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분열과 배신을 조장할 수 있는 집단으로 매도당했다. 유대인도 그 중 하나였다.

1950년대부터는 특히 동성애자들에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하였다. 1950년 2월 파괴분자들에 대한 청문회 동안 국무차관 존은 워싱턴에 있는 음침한 동성애자 지하조직이 미국에 반대하여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실제로 이 음모가 진행 중이며 성도착자들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고발이 잇따랐다. 이 시기 많은 수십만 명의 공무원과 군인 동성애자들이 해고당했다. 이후로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채성 때문에 바로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이 시기 미국의 지배계급은 사회적 위기의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성적으로 부도덕한' 동성애자들을 마녀사냥 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조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은 매우 명료하다. 동성애자운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내부단속법에 맞서 함께 싸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카시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지라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에는, 동성애자들의 삶과 자유를 방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운동에 대한 공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유쾌한 여행!

2004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돌아보기

강형진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영화 박하사탕을 보면 기차길이 거꾸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리고 싶어 하는 욕망의 표현이 아닐까? 그 흩날리는 벚꽃을 다시 꽃에 가져다 붙이는 아픔을 주인공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하는 그 기차길이 있는 간현이란 곳으로 2004 여름 동성애자 캠프를 다녀왔다.

사실, 작년 겨울 캠프와 여름 캠프는 각각 학생회의 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재정 면에서 넉넉한 캠프였다. 하지만, 올해는 그것을 바랄 수가 없었다.

6월 말 제안화의를 시작으로 2004 여름 캠프는 공동준비단을 구성하고 캠프 준비의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동인련 활동가들을 비롯해, 친구사이, 붉은이반, any79, 서울대 이반모임 '퀴즈'와 개인으로 공동준비단에 합류한 동남, 공동준비단은 동인련 옥탑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우는 것으로 이 여름을 보내야 했다.

10년 20년 후... 청소년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변태적 성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해 편견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직장 다니며 유쾌한 커리어와 직장 내 커리어를 실현할 수 있을까? AIDS 감염인들은 약값을 보장받고 그 '드러문' 포비아들의 '너덜거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미디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우리들의 '진실한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지는 이성애주의에 물들어 있는 순결에 관한 집착과 성역할에 대한 고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힘! 강원도의 힘! 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청소년 동성애자의 현재와 미래, 성역할 차별, 순결주의, 동성애자와 정치, 미디어와 동성애자를 공동준비단이 기본 각 주제에 발제자로 준비하고 조별 토론 주제로 정했다.

그리고 전체 강연은 '2004년 한국동성애자인권현황'과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HIV/AIDS'를 전체 강연으로 정했다.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HIV/AIDS 강연은 작년 여름 캠프에서 했던 '약값문제로 본 HIV/AIDS'에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HIV/AIDS 감염인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마침, HIV/AIDS 문제에 인권의 시각으로 운동을 하는 '나누리+'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이번 태국에서 개최된 AIDS 컨퍼런스에 참여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기도 해서 그에 대한 경험도 함께 듣고자 '나누리+' 대표인 가브리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이다.

또한, 참가한 동성애자 혹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을 깨울 수 있으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인권은 그야말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내가 '다르다'는 이유로 '몰리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하는 권리. 내가 '같은' 성에게 '이탈'을 '변태'라고 듣지 말아야 하는 권리. 세상이 돌아가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끌어 모아 '인권'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인권교육국장 외포 선생님을 강연자로 '인권 감수성 찾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리고 작년 여름캠프에서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프라이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라이드 프로그램의 장점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놓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와 더불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상을 보다 뚜렷하게 가져갈 수 있으며,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루하게 강연만 들을 수는 없는 것! 작년 여름캠프에서 대단한 반응을 얻었던 댄스 배우기 시간과 캠프의 백미인 조별 토론 주제를 손극으로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동성애자극단 특별공연 - 강원도에서의 까', 캠프가 진행되는 간현의 맑고 깨끗한 경치를 두루 구경할 수 있는 산행과 산행에서 조별 게임을 준비했다. 그리고 동성애자 상식을 묻는 '우리반 퀴즈'를 준비하고, 이 여름 빠질 수 없는 시원~한 물놀이도!!

이제 프로그램이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으니...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 캠프 홈페이지를 깔끔하게 동남이 꾸며주었고, 박하사탕의 이미지를 섞어 캠프 최초로 '플래쉬 광고'가 나왔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홍보를 시작했고, 디자이너 태성님의 도움으로 예쁜 포스터가 제작되었다. 이 포스터를 들고 사람들과 종로, 이태원, 신촌의 동성애자 업소에 열심히 부착했다.

하...지...만.... 재정이 문제였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출혈을 예상하고 캠프 사업비 일부분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에서 공동준비단 구성에 따른 분담금으로 포스터, 자료집에 대한 비용을 채울 수 있었다.

또한, 위원회 활동가 홍현씨의 활약으로 민주노동당 중앙당 당직자를 비롯, 국회의원동지들의 후원금도 조직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남성동성애자 커뮤니티 '이반시티', 종로 이반 bar '프렌즈', 반전, 반신자유주의 단체 '다함께'에서 단체 후원이 조직되었고, 알지용씨, 디자이너 태성씨, 알콜샘, 민주노동당 성 소수자모임 '붉은이반' 회원분들, 기아자동차 노동자분, 회원의 친구인 이랑씨, 공동준비단이기도 한 동시신호와 그의 연인의 후원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다.

또 하나의 난항! 참가자 조직에 대한 부분이었다.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으나 통~ ~ 반응이 오질 않았다. 간간히 질문이 들어올 뿐... 참가신청도 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대학 단체가 서울대 밖에 없어서? 더워서 그런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앗, 이반시티에서 캠프를? 어쩌라~ ~ 그래도 조직은 중요하다! 목숨 걸고 조직하! 외 기세로 공동준비단에게 연신 조직하! 물 내뱉으며 조이기 시작했다. 동인련 회원들에게 전화도 돌리고, 단체메일도 돌리고, 여기저기 입소문을 내고... 뒷풀이 준비도, 선전 준비도... 자료집도 준비를 끝내고, 선발대와 선발대 차량도 준비하고... 이제 간현으로 출발!!

출발 당일 아침... 선발대를 떠나보내고 전날 파악된 참가자들의 숫자에 엄청난 자책에 빠져들었다. 청량리에서 기차를 한량 전체를 빌렸는데... 도대체... 반도 못 채운 숫자가 가는 것은 무슨 일인가? 청량리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동동 발을 굴렀다. 정신없는 출발에 혼을 빼긴 했지만 차분히 경치 구경에 잠깐의 수면도 취하며 간현의 도착! 그러나 도무지 그 누구도 볼 면목이 없었다. 선발대는 수련원에 많은 숫자가 온다고 했을 텐데... 간현국 민관광지 입구에서 수련원까지 경치를 구경하며... 앗! 근육질의 청년이닷! 어머~ ~ ~를 연발하는 몇몇 게이청년들~ ~ 물 좋다~ ~ 며 왁자지껄 수련원에 도착! 큰 강당에 들어갔다. 도무지 마이크를 쓸 가닥이 아니다. 에어컨 주변으로 빙~ ~ 둘러앉아 오프닝을 시작한다! 현아와 서울대 모임 대표 세이아가 사회를 본다. 돌아가며 인사를 하고... 문득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란도란'이란 표현이 딱 맞겠다. 일단 후발대를 생각해서 오프닝을 뒤로 미루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았다. 물놀이~ 저녁을 먹기 전까지 물놀이를 했다.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프라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프의 유일한 성 소수자 이정미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미 위원은

자신의 연애탄과 결혼생활을 이야기했고, 민주노동당 성 소수자위원회 담당위원을 자신이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했다. 우리들은 성정체성을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 내가 꿈꾸는 연애, 커밍아웃의 아픔, '이 바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냈다. 단박에 어색했던 사이는 서로 다리에 머리를 기대며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했다.

후발대가 도착했다! 조를 더 세분해서 나누고 강당에서 오프닝을 진행하고 2004 한국동성애자인권연환 강연을 시작했다. 동인련 사무국장 이경은 가쁜 호흡과 정돈된 사례 나열로 기가 막히게 강연을 진행했다. 첫날 저녁... 술을 자제하자란 이야기는 사람들의 손에 바리바리 들려오는 알콜로 묻혀버렸고...우리 조는 알콜과 함께 잠이 들었다!

둘째 날 아침, 비가 온다. 산행은 어쩌란 말인가~ 물놀이는~~ 보슬보슬 비가 오는 가운데 강당에서 인권 감수성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나를 표현하는 시간... 세계인권선언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우리반 공익광고를 만드는 시간... 참가자들은 나름하게 프로그램을 즐겼고, 강연자인 의표생도 정답게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리고 이어서, 댄스 배우기 시간을 가졌다. 공통준비단인 친구사이 회원 잔씨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어렵다는 보아의 my name 후렴구를 가르쳐줬다. 다들 뽀뽀한 몸을 어찌할 줄 모르면서도 팔히 배우고 가겠노라하는 의지가 충천했던 시간이었다. 역시 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기분을 느끼고야 말았다.

점심을 먹고 산행이 취소가 되고 대신 영화를 볼기로 했다. 비가 오면 볼수 있게 미리 준비를! 알다가도 모를 게이뮤오를 보았고 (그들의 기묘한 포즈와 영상미학에 감탄을 하면서!!) 일본 동성애 영화를 보려했으나 장비를 미리 손보지 못해 소리는 나오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전날의 피로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자유시간을 가졌고, 잠자는 사람들과 물놀이 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저녁을 먹기 전 산행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쉬워 강당에서 우리반 퀴즈를 진행했고, 참가자인 '원장기갈'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HIV/AIDS 강연은 강연자의 열의와 참가자들의 집중도가 아주 높았던 프로그램이었다. 태국에서 벌어진 AIDS 컨퍼런스 회의장에 들어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이야기... 제약회사들의 가판에 찾아가 페인트를 끼얹고 시위를 한 이야기... 죽어가는 감염인과 외면하는 정부와 이익에 눈이 멀어 의학 접근권을 무시하는 제약회사들... 국내 감염인들의 현실... 동성애

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감염인들의 차별의 현실들을 진지하게 강연한 가브리엘님께 고맙다는 말을 지면을 통해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이어진 조별토론과 촛극!

우리 조는 순결주의에 대해 논했다. 현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순결주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우리 조는 논의 끝에 순결주의는 없으며, 더군다나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순결주의는 서로의 존재감을 이성애자 중심에 놓고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촛극을 준비했고, 난 sm 슬레이브 역할로 목에 허리띠를 감고 주인님! 을 외치는 역할을 맡았다. 촛극시간... 저마다 토론주제를 기가 막히는 끼로 도배했다. 연배가 좀 있는 형님 커플의 오묘한 분위기의 연출, 시우의 1초에 60번 허리를 흔드는 연기, 봉송아 학당을 패러디해서 일반 학생이 이반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연기들... 촛극단의 유쾌한 끼로 캠프는 뒤편이 자리로 옮겨갔다!

원래 조별로 뒤편이를 진행하려 했으나, 숫자를 보아하니 좀 큰방에 모여서 함께 마셔도 무리가 없을 듯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사람들을 한사람씩 일으켜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몸짓도 하면서... 어울림의 시간으로 캠프는 그야말로 가쪽 같은 분위기에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갔다.

"돌이켜 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뱃들이

없인 얘기 할 수가 없네~~"란 노래가 있다. 두어달 간 캠프를 준비하고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면서, 내 인생의 뱃들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뱃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활력이자, 내 정체성의 자신감이자, 내 미래의 동지를 얻은 것이 아닐까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힘은 나 홀로 할 수 없다. 나를 찾아 떠나는 유쾌한 여행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동지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더 커질 것이고, 그 힘으로 동성애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다. 캠프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소중한 기회이다.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캠프 참가자들과 서울에서 다시 만나 '어울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캠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확신과 의무감이 들었다. 재정이 어렵다면 사람들을 만나 캠프 필요성을 피력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며, 단 몇 사람이 참가하더라도 그 안에서 정체성의 자신감과 생활의 활력을 캠프 참여로 불어넣어야 한다. 캠프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 소수자의 무지개 색으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행사라고 말하고 싶다!



캠프 후기

독수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인권캠프를 다녀온지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 기억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 프라이드 프로그램, HIV 감염인들의 이야기, 조별토론과 촛극, 인권감수성 찾기 등등 많은 대화속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가식을 벗은 저의 모습과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끄러운 편견들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무엇보다 가장 재밌었던 건 어울림(!)이었지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캠프였다고 해야할까요? 다른 놀기위한 모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죠.

이번 캠프를 다녀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였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밥그릇을 챙겨주지 않는다는걸 확실히 알게 되죠. 기대하세요! 내년엔 20살된 수득이가 동인련에 합류할게요~!!

당연히! 내년에도 참석할게요~ 10명 끌고오겠습니다!! 흐흠~ 모두 내년에 봐요~"

국민연금과 동성애자



태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노령, 실업, 상병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법은 노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 혹은 상실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1986년 12월 31일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칭하여 1988년 1월 1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출발한 국민연금법은 이후 당연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지금은 농어촌지역주민과 도시지역 주민 등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여 전 민을 대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전 국민보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중요한 급여로써는 연금보험 가입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장애급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현 가입자,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 혹은 실종된 경우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인 유족급여, 그리고 일정기간 보험가입기간이 충족되면 60세(이는 장기적으로 1년씩 연장하여 65세까지 연장할 계획에 있다.)에 일정한 급여를 받는 노령급여가 있다.

그러나 사실 상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성숙된 상태에서 각 제도들이 출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권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치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볼 때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의 입법자들에게 성 평등적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이었고, 사실 상 전 국민보험 제도라고 하지만, 태생적으로 사각지대를 안고 출발한 제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편(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만이 연금의 가입자인 경우가 많고, 때문에 노후생활도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남편의 연금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연금법 시행초기에는 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에 이혼한 경우 주부였던 여성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98년 법개정으로 신청에 의하여 연금을 분할청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 부부는 여전히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지면에서는 바로 이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요건이다. 맞벌이 동성애자부부라면 각기 20년 이상 보험료를 기여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주로 하는 동성애자와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 그 임금으로 생활을 꾸미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자 부부도 존재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로써 살아온 동성애자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들이 60세가 되면 뒷바라지 하던 전업주부동성애자는 그의 배우자의 노령연금으로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해온 주부 동성애자가 있다면, 그는 배우자에게 도덕적으로 연금의 일정부분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기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개념은 혼인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 동성애자의 혼인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들어야만 했다. 친절하게도 국민연금법은 배우자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배려하고 있으나, 이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법원의 판결은 회의적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노년부부 중 국민연금가입자가 이혼(이별)을 선언한다면, 몇 십년동안 가사노동을 제공해온 상대방 동성애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연금분할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노령연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유족연금에 있어서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유족연금이란 앞서 설명한대로 가입자 등이 사망한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법은 유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국민연금법 제63조는 유족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고,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동성애자부부의 경우 배우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말한 동성애자 부부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결국, 국민연금법은 동성애자 부부의 경우 급여를 받길 원하는 경우 쌍방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모두 가입자가 되라는 암묵적(?) 강요를 하고 있다. 또한 그리되

지 않는 경우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 것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를 위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그리 달갑지 않은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각론적인 문제 외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이고, 그에 따라 연금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며, 그 이론적 갈래에 의해 접근방법도 논자에 따라 다르다. 오늘 제시한 문제점의 경우, 비교적 각론적인 것으로 문제의 핵심은 드러나 있다. 단순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1인 1연금제로써 모든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노령의 위험을 해소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와 소득비례연금을 2원화시켜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소득비례연금이라면,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은 앞서 열거한 상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성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제도 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국민연금법만의 문제점이 아니며 다른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역시 개인단위가 아닌 세대단위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애자부부는 사실상 국민연금만이 아닌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편이 옳다. 물론 기존의 결혼제도에 대한 사회학적 인식에 있어서는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었으나, 앞서 말한 면에서, 즉 좀더 현실적 측면에서는 동성결혼이나 사실혼관계의 인정은 정취해야 할 권리인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LGBT Paper 8·9월 호의 이경, '동성결혼 어떻게 봐야할까' 참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이므로, 이 것이 실현되지 않는 법에 있어서는 개정 또는 입법에 대한 투쟁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성애자는 사회보장의 테두리에서 방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9월 18일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출범은 큰 의미일 것이다. 성소수자위원회(준)가 앞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활발한 입법투쟁을 펼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내며 글을 마친다.

이 땅 모든 인간의 건강은 보호되어야 한다!

권미란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연합)

[지난 모에 이온 HIV 병력 권력리스 관련 기사입니다. 원제는 나누리+대표님의 글을 실을 예정이었으나 편집부의 실수로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다른 회원님의 다른 본 글이 게재되고 이뿐만 나누리 대표님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점 다시 정정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15회 국제에이즈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에이즈 예방, 확산저지의 명목으로 탄압받고 있는 주체들의 권리, 치료권과 인권으로부터 아예 배제되어있는 주체들의 권리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피켓과 플래카드에 적고 회의장 주변과 방콕거리에서 행진을 하였다. 그들의 요구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마약사용자의 인권: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깨끗한 바늘과 치료권을 달라!**

태국에는 많은 마약사용자들이 있고, 이들 중 50%가 HIV에 감염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한 에이즈 확산의 원인 중 하나가 마약사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마약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바늘의 중복사용 때문이다. 그러나 태국 탁신총리는 작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사용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2500여명이나 죽였다. 이번 회의에서 태국 마약사용자 네트워크(TDN)의 목소리는 어떤 주장보다 컸다. 태국 마약사용자 네트워크는 2002년 12월에 결성되었다. 그들은 태국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중단할 것과 마약사용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태국에서 마약사용자들은 에이즈위험집단으로써 강제검진을 받아야 할 뿐 에이즈치료로부터는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마약사용자들이 다른 이들과 연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마약사용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NGO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국 마약사용자 네트워크는 탁신총리가 겨는 총부리 앞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약사용자를 공포와 죽음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깨끗한 바늘과 마약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태국마약사용자네트워크(TDN)은 글로벌빌리지에 부스를 마련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중단하라'는 플랜카드를 걸 어놓았다.

탁신총리는 15회 국제에이즈회의 개막식에서 또 약속을 했다. 그는 에이즈 확산 저지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최소 5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탁신총리는 5만 명의 환자에게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반복해 왔으나 지키지 않았고, 미태 FTA를 협상하고 있다. 미태FTA협상을 중단하지 않는 한 이번의 약속 또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태국민중들은 알고 있다. 태국민중들은 탁신총리의 약속이 국제적으로 공표된 만큼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과 확산저지라는 명목하에 마약사용자들이 사살당하는 일이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14일 약 2000명의 태국활동가와 환자, 민중들은 방콕 도심에서 시위를 조직화했다.

② 성별평등이 있는 한 여성의 치료권은 없다

14일 UN에서 '여성과 HIV/AIDS: 위기에 직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아프리카에서 결혼한 젊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비슷한 연배의 여성보다 더욱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성별평등과 차별 때문이다. 특히 더 나이 많은 남편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과 여성이 원하는 섹스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남편이 있는 여성보다 과부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찾기가 더 쉽다고 한다. 발표자는 부시의 에이즈정책 ABC(절제하라, 정숙하라, 콘돔을 사용하라 Abatain, Be faithful, Condomise)를 비판하면서 성평등과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없다면 국제적으로 에이즈에 대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염여성의 60% 이상이 15~24세에 HIV에 감염된다. 자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감염인의 58%가 여성이다. 15~24세의 젊은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HIV에 감염될 위험이 2.5배나 높다. 대부분 재산권이 없는 그녀들은 에이즈치료제를 사먹을 수 없다. 그녀들에게 재산권과 성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그녀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Ludfine Anyango는 남편에 의해 감염되었고, 26세에 HIV 양성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고 안전한 섹스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차별받는 것에 절망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케냐에서 ActionAid의 HIV/AIDS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그녀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에이즈로부터 예방하고,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microbicides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microbicides는 콘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크림으로, 이것이 단 60%효과가 있더라도 3년내에 250만명 이상 여성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녀는 '여성은 남편없이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Yupadee 역시 에이즈로 남편을 잃고 그녀도 감염이 되었다. 그녀는 HIV가 그녀의 삶을 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긍정적

으로 바꾸었고 말한다. 태국 HIV/AIDS 네트워크의 일원인 그녀는 태국 HIV/AIDS 여성 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감염여성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HIV/AIDS에 대한 정보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행운이라고 말한다. 태국 HIV/AIDS 네트워크는 지난 6년간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프에 맞서 에이즈치료제 디다노신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한 바 있다. 그들은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프에 대해 디다노신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위반소송을 걸었고,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프가 디다노신에 대한 특허권을 태국에 양도하도록 만들었다.

③ 이주노동자의 권리

태국에는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는 2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중 29만명만이 합법으로 등록되어있다. 특히 매곡강 주변과 중국에는 배를 타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의 존재는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에이즈에 대한 정보나 치료를 공급받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HIV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강제출국시키는 강제검진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누가 당신의 집을 청소하는가?', '강제검진을 반대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한 권리를!' 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④ 성노동자의 치료권

태국 탁신 총리는 개막식에서 태국정부의 100% 콘돔사업이 성노동자들의 감염률을 20%까지 인하시켰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태국의 성노동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탁신총리의 연설을 듣고 화가 난 한 여성은 '태국정부의 콘돔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콘돔을 사용해왔다. 태국정부가 공급하는 콘돔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마 한사람 당 한개씩 뿐이다. 그리고 한 사이즈의 콘돔만이 공급된다. 우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직접 돈을 내고 콘돔을 산다'고 말했다. 태국정부가 공급하는 콘돔은 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이들의 치료권은 배제되어 있다. 태국은 섹스관광산업으로 유명하다. 일본과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섹스관광을 하러 태국에 간다. 방콕거리에서 나이트 백인남성과 젊은 태국여성이 함께 지나가는 것

을 볼 때마다 속에서 울컥했다.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태국주변의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여성들이 팔려온다. 그녀들은 차별하지 말고 치료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⑤ 어린이의 권리

유네스코는 'Children on brink2004'보고서를 통해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이가 2%(1990년)에서 28%이상(2003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2000년 이후 380만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고, 2010년까지 1850만명의 어린이가 에이즈로 인해 고아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04년 기준 HIV에 감염된 어린이는 290만 명이다.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HIV에 감염된다. 매년 50만 명의 어린이가 15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 치료제가 공급되지 않아서 많은 아이들이 감염된 채로 태어나고, 이후에도 기본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 국가는 매우 희박하다. 개발도상국에는 감염된 어린이의 치료를 위한 간단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량에 맞춰 어린이가 먹기 쉽도록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없다. 거대제약사들은 어린이 에이즈치료제가 선진국시장에서 큰 이윤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활동가들은 어린이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정적 문제라고 말한다.

감염된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은 어린이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감염된 어린이들은 친구들로부터, 학교로부터 배제된다.

15회 국제에이즈회의 첫째 날, 글로벌빌리지에는 어린이 30~40명이 피켓을 들고 들어왔다. 어린이들은 '당신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나를 만지는 것 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해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14일 어린이들은 다른 주체들과 함께 방콕도심 거리를 행진했다.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 다녀와서...

정숙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남한에서 열리는 반자본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포럼이자 축제인 전쟁과 변혁의 시대(이하 전쟁)에 다녀왔다. 이번 포럼에는 총 1400여명의 사람들이 5일 동안 50여개의 포럼에 참가해, 지난 반전, 반자본주의 투쟁 속에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며, 운동의 성과와 미래를 전망하는 토론회였다.

전쟁과 자본주의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지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는 자리였다.

첫 토론회는 "이라크 점령과 한국군 파병"이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은 석유와 중동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지배계급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분열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반전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국군 파병으로 인해 낙담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이라크 문제는 끝났다며 한 반대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비판이 있었다. 반전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이라크 저항세력의 투쟁과 국제적인 반전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5일간의 토론회는 시작됐다.

특히 동인련 회원들의 플로어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에이즈와 억압'에서는

에이즈가 동성애자와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성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에이즈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된 약으로 에이즈 환자의 수를 연장시킬 수 있다.) WTO 지적재산권 규약으로 인해 앞으로 20년간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약을 생산해 싼 값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제약회사의 이권만을 지켜주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빈곤을 퇴치하고 약을 보급하고 성에 대한 보수적인 편견을 없애는 것만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토론의 핵심이었다.

올해도 많은 연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의 진보언론과 대안언론을 강조한 토론회와 해방이후 남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귀로 듣는 소설처럼 이야기한 방한석 작가의 포럼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타이의 사회주의자 자이 자일스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 맑스주의이며 환경문제 또한 계급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환경문제에 대한 포럼과, 자

본주의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한 오늘날의 NGO들이 기억에 남는 포럼이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마틴 스미스의 '급진음악과 운동'에서는 흑인 섹스폰 연주자였던 존 콜트레인의 음악세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가 받았던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을 재즈음악으로 담았던 그의 열정을 마틴 스미스와 플로어 토론의 참여자들 또한 열정적으로 보여준 토론회였다.

또, 맑스주의의 전통을 지켰던 혁명가들(트로츠키, 레닌, 로자, 그람시)의 삶과 사상을 다룬 포럼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토론회였다. 그 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에 대한 다양하고 진지한 주제들로 채워졌다.

마지막으로 세계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의 미래에서 마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에 참여해 함께 행동하고 싸우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10월 17일 국제 반전행동의 날에 동인련 회원들도 전쟁에 반대하고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대열에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

이번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발제를 맡았던 가브리엘님과 토론과 소식이 판매, 캠페인 등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보여주신 동인련 회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식 참가기

강형진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이 땅 정치에 밑바닥부터 그 운동성의 감각을 잃지 않고 기존 정당의 날림 정치에 식상해하며 민중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를 일구려는 정당이 있다. 민주노동당! 그간 당의 안과 주변부에서 당을 지지하고 활동해온 성 소수자들은 당과 '교통사고'로 대형사고를 치며 그 화려한 준비된 동거를 시작했다. 그 시작의 자리... 바로, 민주노동당 성 소수자위원회(준)의 출범식! 그 유쾌한 한마당! 위원회 상근활동가 홍현의 부탁으로 차를 뒤편에 타고 연락을 받았다. 막상 준비하는 느리나무 카페에 들어서니... 내 가슴보다 설레게 출범식을 흥분 날아가게 할 풍선들이 달려 있었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갑자기 울동을 하라는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동인련 회원과 함께 벼들이 있기에를 연습했다.

본 행사를 시작하면서 성 소수자 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소개와 발언 그리고 성 소수자위원회(준) 여기동 위원장의 인사가 있었다. 그는 "당 강령에 민주노동당이 꿈꾸는 새로운 공동체의 개념의 하나가 바로 성정체성 차별을 비롯한 잘못된 인습으로부터 해방이요, 더 나아가 모든 억압과 굴종으로부터 해방되어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는 수평적 연대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이견집단 등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차별당하지 않을것, 필요한 보호를 받고 또 각각의 개성이 존중될 것,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나 억압, 착취와 차별이 모두 사라진 해방의 세상을 만드는 것" 이라고 말하며, 민주노동당 기본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또한, 2003년 대선을 준비하며 성 소수자 커뮤니티 선전 작업을 시작으로 '붉은이반'이 결정되고 활동한 내용과 함께, "우리는 성소수자위원회의 출범을 민주노동당, 위민네타-크라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게 커다란선물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본 선들은 앞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제도, 차별, 억압에 맞선 이반해방의 꽃다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동성혼과 입양 등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사랑하는 동성혼 부부의 사회보장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와 같이 여러 분야의 성소수자의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입법화를 통한 법적, 제도적 완전한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성 소수자위원회는 당내,외의 교육사업, 동성애 커뮤니티와

연대사업,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과 같은 다른 소수자그룹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며 법과 제도에서의 투쟁 약속을 잊지 않았다.

성 소수자 연예인 홍석천의 입당 행사가 있었다. "소수의 소수를 위한 정치를 정치적 '소수'인 민주노동당이 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보였다." 라고 말했다.

문화관도 화려했다. 여성이반풍물패, 남성이반풍물패의 흥겨운 한과 동인련 회원이기도 한 원장기갑의 드레스, 개망새의 '동지가' 등... 성 소수자들의 흥겨움에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 소수자 위원회의 시작은 한국 당 정치의 신선한 새로운 시작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그리 입지 않을 것이다. 성 소수자를 위한 법과 제도에서의 투쟁, 그것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연대의 든든한 힘을 키워야 하는 위원회 자체의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굴건하게 서기위한 노력에 성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과 인권운동

한솔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90년대 들어 통신 시대가 열리면서 인터넷 친목 모임이 급속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동성애 커뮤니티도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하이텔 '또 하나의 사랑', 천리안, 나우누리 등의 모임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통신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게 된 것이다. 이전의 동성애자들은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이태원, 낙원동등으로 나가야 했으나 이후로부터는 집에서 앉아 동성애 커뮤니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후 통신모임은 '엑스존', '이반시티', '티지넷' 등의 대형 사이트와 다음 친목 카페 등으로 날로 세력이 커져 이제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은 동성애자 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 - 인권에 관련한 일을 함께 공모하고 색슈얼리티에 관한 대안적인 담론을 창출할 대면(對面) 커뮤니티¹⁾ - 의 축소로 인해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 초기에 그러한 양상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이 결코 인권운동의 축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보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누구든 돈 몇 천원만 있으면 PC방에 가서 다른 동성애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각종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쉽게 동성애자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예전의 소규모 오프라인으로 존재하던 동성애자 커뮤니티는 대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형성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혁명이 묻고 온 급격한 사회변동의 흐름은 사회운동에도 새로운 양상을 물고 왔다. 컴퓨터가 사회운동의 효과적인 부기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사이버스페이스는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장으로 채택되고 있다.²⁾ 실제로 우리의 운동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홈페이지 개설이 이미 인권운동의 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많은 동성애자 대중이 자신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이 없었더라면 지난 반정운동 때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단순히 피씨 통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나온 것만은 아니다. 97~98년 노동쟁악투쟁, 2003년 반정운동 등 거대한 대중들의 분노 표출이 동성애자들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벽장 속에서 나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몇 가지 문제점 - 익명성, 실제적인 실천의 부재 - 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인 동시에 그것이 가상의 공간인 만큼 사회적 책임이 면제된 공간이기 때문이다(김문조, 2000).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에는 그 운동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이벤트 지향적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즉, 온라인에서 활발한 정치적 토론이나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표출 등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나 친목위주의 일회성 모임(번개)만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장은 양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안의 동성애자 대중에게 우리는 어떠한 운동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 그들을 조직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의 동성애자

그러한 의미에서 대표적 사이트안의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누구나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자신들에 대한 인권 추구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 많은 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친목, 일회성 만남 등을 목표로 세워졌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애인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역시 접근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찾는 중이에요. 아 근데 정말 힘드네요..... 계속 참을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저 때문에 편히 커를 계지고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역시 재가 대쉬하는 건 나쁜거겠죠? 휴우, 답답하네요.....
(ignet 자유게시판인용)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노 표출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게이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죄인처럼 살면 안되지요.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아름다운 사람을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이반시티 자유게시판인용)

또, 고민상담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위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루 빨리 성소수자 전문상담 센터가 생겨야 할 것이다.

...부도남을 저를먹거리며 저를 욕박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하고 형과 주먹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아예 이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저를 통해서 화장실로 이용합니다. 그 후로 몇 번이나 그한테서고 말해 봤지만, 그때마다 아웃팅을 먹여줍니다. 막무가내로 집에 알릴거랍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간생략.이반시티 상담실인용)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러한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한나라당, 자민당, 민노당 셋 중에서 제일 동성애자에게 후박한 태도를 보이는 건 민노당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작년 대선주자에게 끼리끼리속에서 동성애자에 관한 인터뷰를 했을 때, 후보와 측근 모두 바깥에서도 민노당이 그나마 인터뷰에 성의를 보였었어요. (아마 티지에 login 할 때 보이는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한나라당은 보수 그 자체였고, 민주당은 당시에 에이즈와 너무 연관시켜서 생각하더군요. 에이즈 확산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도 규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실제로 민주당이 작년항해 여당되고 나서 동성애자나 에이즈에 대해 한 활동이나 이론이 한 행동들 보면, 그래도 민노당은 동성애문제에 대해 무조건 에이즈와 같은 취급을 하면서 경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이성애자와 어떻게 하면 공동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라도 해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뷰 당시의 성의도도 민노당이 제일이었어요. 아직은 정책측면에서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정 이해서 민노당을 지지합니다.
(ignet 자유게시판인용)

나가며

온라인 커뮤니티로 인해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축소되었다는 단순한 연결은 작은 부분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는 대면 커뮤니티(오프라인 커뮤니티) 운동 못지않게 오프라인 커뮤니티 운동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실제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온라인 커뮤니티 안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다. 따라서 양자의 긴밀한 연결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양자를 서로 분리해 놓고 보면, 무엇이 더 나은 운동인가에 대한 논의 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티내의 운동의식을 오프라인으로 끄집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안의 동성애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홈페이지 관리 강화,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사이버 이반문화 어떤 가능성-이승희
2)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과 동향-김경배

피에르&질 관람기 두 번째

동시신포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간혹 신화의 내용을 빌어 화살을 맞고 칼에 목이 베인 것처럼 조작하면서 가학적인 섹스코드나 크로스드레스의 이미지를 집어넣기도 하는 이들의 작업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그리고 성적 취향의 다양한 차이와 모호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과감하게 그려진 가학적인 장면은 화사한 페인팅과 어울려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듯한 욕망을 끌어내면서, 사회의 터부시되는 섹슈얼리티의 소재들을 온갖 혼재된 컨셉으로 가볍고 즐겁게 슬쩍 내놓는다. 이런 이미지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 화려하고 섬세하면서도 어딘지 조악해보이고 어색해보이게끔 '의도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면서 작품은 캄캄한 성향을 한껏 뽐내낸다. 그럼에도 흡사 리히텐슈타인의 작업이 만화의 장면을 캔버스에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기존 예술계를 비판하려는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팝아트라는 예술의 범주로 인정받던 것처럼, 마치 삼류 잡지에서나 나올법한 비속함과 매스미디어적인 대중성을 강조하는 그들의 작업은 예술과 거리가 먼 듯 함에도 (한때 키치로 치부되며 예술계에 배격받기도 했지만) 90년대 프랑스 사진에 예술에 한 획을 그었다고 칭송받을 만큼의 외의를 부여받으며 예술적 면모도 과시하게 된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볼 때, 그들의 작업이 대중과 예술 두 마리 토끼사냥에 성공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그들의 작품을 대하여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린시절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해서 혼란 기억, '남자는 xx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뭔지 모를 죄의식에 싸여 괴로워하면서도 예뻐지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소망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작가는 아름다운 형태로 인화지에 한껏 체현해내는데, 이는 곧 그들의 작업이 규율화된 현 사회체제에 길들여진 관객의 욕망을 채움으로서 소비주의적인 색을 입게 됨을 시사한다. 어쩌면 그들의 작품들이 사회구조의 변화보다는 체제 속에서 단순한 쾌락과 욕망의 소비수단 정도로 한정되고 마는 것은 아닐런지.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보니 과연 미술관에서는 어떻게 전시해놓고 이야기하는지 사뭇 궁금해진다.

3.편견의 게임

서울에서의 전시주제는 '뷰티풀 드래곤', 대개의 주제들은 그들의 작품을 관통하는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성격들이 많다. 이번 전시의 작품 소재는 대개 용과 비천이나 신의 이미지 같은 기존 소재들, 혹은

궁정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빈민가의 거지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작가는 나름대로 아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꿈'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꿈이라고 하는 그들의 개념은 실제로 보고 들은 현상이나 배워온 것들이 각자의 무의식적인 기억과 감각에 여과되어 보여지기 마련이다. 그들이 아시아에 대해 보아오고 생각해오던 이미지들을 보면(꽃을 한아름 안으며 환짝 웃고 있는 '장 폴 고띠에'의 모호한 분위기는 사뭇 죽어버린 듯한, 흔히 '오리엔탈'이라 부르는 동양의 전통이미지들, 혹은 앞의 화려함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지저분하고 어둡어둡한 배경 가운데 꿈꾸는 듯 웃음짓는 빈민가의 거지 이미지들이 주를 이룬다. 이상한 것은 그런 이미지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일본모델의 경우 세련된 도시 분위기, 혹은 약간의 성적코드가 가미된 상황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동남아모델은 거지나 승려, 혹은 형상화된 신과 함께 놀고 있거나 전통복장을 하고 용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처럼 일본모델이 들어간 작품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컨셉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지역적 편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동양의 판타지는 (아름답게 재구성되었다는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작가가 있는 유럽과 전시가 벌어지는 극동아시아 사이의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막연하고 편견 투성이다.

하지만 전시에 발견되는 그들의 편견을 작가에게만 전가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애초에 '뷰티풀 드래곤'이라는 아시아를 테마로 세운 전시기획 자체가 바로 작가의 편견을 전시기획자의 '색안경'을 통해 확연하게 여과시켜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 전시의도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시각화된 공간- 전시장을 묘사해보면, 잔벽 하나 없이 뿔뿔이 뚫은 넓은 공간과 시멘트 혼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바닥, 통풍구와 파이프들이 노출된 천장은 온통 발강게 칠해놓은 벽과 어울려 전시장 전체를 작품분위기로 살려내고 있다. 이는 작품 속의 공간과 전시의 공간이 하나가 된 듯한 착각을 부리며 전시 관람의 재미를 배가시킨다. 특히 매끈하게 페인팅된 빨간 벽은 육감적인 작품의 성격과 그대로 맞아떨어져 비주얼하고 감성적인 작품의 전시효과를 증과 동시에 다소 어두운 조명과 어울려 클럽의 쾌락적인 느낌을 물씬 풍겨낸다. 전시기획자는 이를 두고 '빨간색은 아시아를 상징하는 색'이라며 다소 억지스럽게 전시 주제를 철저히 맞춰보려는 듯 우를 범하고 있지만, 뭐...이정도는 애교로 봐준다 치자.

하지만 전시관 입구에 붙어있는 전시서문 '그들의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게이문화이다. 동성애자인 그들의 실제세계는 편견과 적의로부터 투쟁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은 아름답고 또한 슬프다.'라는 식의 발상은 전시된 작품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4.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기획과 동성애로부터 거리두기

작품전시가 관객에게 일으킨 효과를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작품에 등장하는 가학적 이미지와 조악한 분위기-속에서의 감각적인 쾌락에 젖어들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만족시켰다는 기분을 느끼거나, '스스로 내 정체성을 규정하고 억압해 왔던 건 아닐런지' 따위의 생각들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시기획자는 감상에 어느 정도의 경계를 그어버린다.

'우리가 입사리 접하지 못한 다른 삶의 형식에서 기반한 작업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말은 좋다. 그들의 작품에 대해 (실제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도 않는)억압받는 동성애자들의 투쟁적인 슬픔이 묻어난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측은히 바라보는 전시기획자의 자세는 전시서문에서부터 동성애자의 삶을 낭만적인 동정의 시선으로 관조한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성애자들이 소개하는 퀴어 예술은 언제쯤이나 그들도 모르는 퀴어 예술의 경계를 벗어던지며 '슬픔'을 던지고 일어나 관객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식의 측은지심도 포비아적 발상으로 덤벼들던 이전의 모습들에 비하면 진일보한거라 얘기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최주류를 자랑(?)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지향하는 동성애자 작가의 전시의도와 사회의 동성애자들에 대해 갖는 사고는 절대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는 이들 중에는 동성애자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일 수 있고,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누구일수도 있다. 하지만 전시기획의 방향은 시종일관 소수자를 향한 동정을 기반으로 한 이해, 자신들이 바로 주류(여기서 주류의 의미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주로 이성애자들로 한정시켜버린 관객, 전시기획자를 일컬음)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며 '예술작품'으로 '소수자의

삶'을 '미술관 안'에서 접해보자는 식의 발상을 고수한다. 한마디로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아닌, 단순히 보고 즐기면서 겸사겸사 '성소수자도 동성애자도'라는 식으로 끝내보고자 하는, 소위 '예술의 자유'를 가장하고 위선을 떨면서도 그들의 전시기획력을 자화자찬하려는 시립미술관의 알팍한 심보가 아닌가. 나아가 그들은 피에르&길의 작업을 '게이 특유의 감수성' 정도로 그 성격을 한정시키고, 작가 개인의 취향을 모든 동성애자들의 감성으로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허구헌날 표현의 자유를 고수하는 미술관 안팎으로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런지.

5. 결론-관객마저도 배제된 파고치는 화투놀이.

요컨대 이번전시는 성적 코드에 대한 그들의 재치

있는 발상과 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인 동시에, 작가와 미술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다. 더불어 작품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인정해준 시립미술관의 배려는, 수집가들에게 함께 공유하는게 어떨까 설득하기를 포기한 듯 입구에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세요'라는 경고성 멘트를 시뮬경계 낱립으로서, 얼마든지 복제와 조작, 공유로서 재해석이 가능한 사진매체의 성질이나 앞서 말한 소비주의적 성향마저 예술작품의 아우라로 전치시켜버린다.

결론적으로 작가의 서구중심적 사고, 전시기획자측의 여과 없는 서구중심주의의 수용과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맞물려 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갖는 이번 전시의 근간에는 제국주의적이고 동성애에 탄압적인 역사가 뿌리박고 있음을 상기해야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는 전시기획자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예술작품'을 '목적'이라도 해보자는, 한정에 한정 그리고 또 한정을

지으면서 자신의 기록권을 재확인하고 있음을 명시해야함은 물론이다. 여기에서 '이 작품은 다른 사람 소유이니 돈을 주고 화보집을 사지 않는 이상 관객의 자의로 사진을 찍어 가질 수 없다'라는 제지와 압력의 강요까지 붙으면, 지금도 음반, 화보, 잡지 등 상업매체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그들의 작품에 TV쇼에서나 말하는 소위 '진품명품'의 딱지가 붙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조금은 변형된 듯한 예술을 가장한 위선과 미술관의 권력유지, 기록권 재확인 등을 전시의 최종목적으로 설정하고 충실히 실행해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피에르&길 展은 그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된다.

《JEAN-PAUL GAULTIER, 1990》

인권운동과 나

RIP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그것은- 행복한 오르가즘이었다. 꼭 맞는 온기를 가진 이와 나누는.

인권이라는 것이 그리 힘든 말이 아닌데도, 나에게 난제인 것을 보면, 아마 험사리 인권과 연애하고 탐닉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사실이다. 실로 그것이 스스로의 일상에 접하는 것임에도, 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숙박되는 쇠사슬 같은 억압에 대한 저항, 모두 마음속에 탐닉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이 있을 텐데도, 말이다. 허나 그런 난제는 단 한마디의 달콤한 동지애로 사라진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행복해질 가능성에 다가설 때 사라진다. '너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인연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지.' 사랑하는 동지에게 행복한 말을 들어본 사람은 모두 나의 기분을 알 것이다. 함께 거리로 나가 여섯 색의 무지개가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을 본 이들은 알 것이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그들과 나의 바람, 인 것이다. 소

박한 아름다움을 꼭 보듬어 안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열망. 행복에의 탐욕. 꺾을까지 발강게 달아오르게 하는 두근거림의 절정을 그대와 나는 알 것이다. 연애를 하고 있나보다. 인권人權과, 사람스럽게 몸을 부비며 파사로운 희망을 주고 간다. '너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인연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지.'라는 말, 되돌려 그에게 주어야겠다. 꼭 맞는 체위를 가진 나의 마음 깊은 파트너, 수시로 나를 울리고 다시 주먹을 꼭 쥐게 만드는 이상과 탐닉의 연인. (신기하게도 이 연인은, 많은 애인을 만날수록 더 빛이 나고 더 희망차진다. 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모두가 웃을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고 열망하는 대상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무지개 빛깔의 잔정을 가득 담아 극찬하고 있는 이 사랑스러운 연인을, 그대들도 부디, 마음 깊은 파트너로, 이상으로, 극복 가능한 난제로, 탐닉으로 만나기를, 혹은 만나고 있기를.

도종환 시인의 시가 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즐기길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대와 나는 꽃이 되고, 우리의 '연인'도 꽃이 되고, 탐닉도 꽃이 되고, 젖고, 흔들리고, 일 활짝 벌려 피운다. 끝은 달콤하고 향기롭고, 즐기 곧게 뻗고, 알찬 씨앗을 맺는 꽃이 된다. 따뜻하게 몸속 어딘가 요동치고, 숨 막히도록 미래를 꿈꾸는 꽃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오르가즘이 된다. 그대들도 부디, 사랑스러운 연인과 무지개 되기를.

미국의 침략전쟁을 저지하라!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파병 연장 중단하라!



일시: 10월 17일(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주관: 반전평화공동행동(준)

주최: 파병반대국민행동

*10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백만 노동자 행진" 이, 영국 런던에서는 유럽사회포럼 제의 반전 행진이 있습니다.

마이클 버그 방한 반전 강연
 '무엇이
 내 아들 닉 버그를 죽였는가?'
 - 서울 강연회 -
 일시: 10월 9일(토) 3시
 장소: 중구 구민회관 (동대문 밀리오레 뒤)

주최:
 다함께

후원:
 파병반대국민행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프레시안,
 반전평화기독교인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가비: 2,000원



동인련은 이렇게 참가합니다.
 아래의 일정과 연락처를 참고하십시오.

- 10월 9일 마이클 버그 강연,
 오후 2시 40분 구민회관 앞에서 뵙겠습니다.
 참가티켓은 10월 2일 동인련 후원의 밤에서도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 10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오후 2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입구(혜화역 1번출구방향) 에서 무지개깃발을 찾아주세요.
- 연락처: 02-778-9982(사무실 부재시 핸드폰연결) / lgtpride@empal.com

동성애자 인권연대 후원회원을 기다립니다.

*정기후원: 매월 1구좌(10,000원) 이상을 자동이체나 지로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

*비정기후원: 1구좌(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일시적으로 온라인입금

*후원계좌: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정윤(동인련)